

◆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1>보도자료</h1> <p>2025. 12. 15.(월)</p>	 <p>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</p> <p>http://www.kcue.or.kr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문의 ☎ 02-6915-7620~3 대학혁신지원실장 서동석 대학라이프지원센터장 임호용 담당 천윤희

「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」 결과 발표
대학 총장의 리더십 하에 RISE 사업단 구성,
RISE를 대학 및 지역의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식

□ 한국대학교육협의회(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, 이하 대교협)는 RISE의 성공적인 안착 및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해 실시한 「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」 결과를 발표했다.

□ 조사는 2025년 11월 20일(목)부터 12월 3일(수)까지 193개교*의 RISE 사업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, 123개교(응답률 63.7%)가 응답했다.

* RISE는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이 원칙이므로 대학이 본교와 다른 광역시도에 분교 및 캠퍼스가 소재한 경우, 분교 및 캠퍼스도 각 개별 대학으로 처리하며, 컨소시엄(참여)만 운영하는 대학 및 경기도 추가 선정 대학('25. 11. 4.) 포함

□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[주요 결과]

▶ RISE 사업단의 교내 위상

- RISE 사업단은 (총장 직속·직할) 독립조직(76개교, 61.8%)으로의 설치가 가장 많았고, 그 뒤를 이어 부총장(산학연구 등) 산하의 독립조직(12개교, 9.8%)과 산학협력단 하위 조직(12개교, 9.8%)으로 나타남

▶ RISE 사업단의 조직 구성

- RISE 사업단 하위에 조직 또는 부서(본부, 센터, 팀 등)를 설치한 학교가 61개교(49.6%)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, 그 다음은 RISE 사업단 내 중간관리 조직 또는 부서를 설치하고 그 하위에 부서를 둔 학교는 30개교(24.4%)로 나타났으며, RISE 사업단이 하위 조직 또는 부서 없이 단일 사업단으로 설치된 학교는 26개교(21.1%)로 나타남

▶ RISE 사업단의 인원 구성

- RISE 사업단 인원수의 평균은 22.64명으로, 최대 67명, 최소 2명으로 나타났으며, 인원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~ 20인 미만이 34개교(27.6%)로 가장 많이 나타남

▶ RISE 사업단장 겸직 여부 및 겸직 유형

- RISE 사업단장을 겸하고 있는 학교 수는 105개교(85.4%)로 나타나 주로 사업단장 외에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RISE 사업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105개교 중 부총장직(교무, 연구, 산학, 대외부총장 등 포함)을 겸하고 있는 학교가 36개교(34.3%)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는 산학협력단장 32개교(30.5%), 기획처장 24개교(22.9%) 순으로 나타남

▶ RISE 사업단장의 교무위원 여부

- RISE 사업단장이 교무위원인 학교 수는 101개교(82.1%)로 나타나 사업단장은 주로 교무위원 급임을 알 수 있음

[시사점]

▶ 대학 총장의 리더십 하에 RISE 사업단 구성, RISE를 대학 및 지역의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식

- 대학은 RISE를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대학의 핵심적인 거버넌스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
- RISE 운영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략적인 추진력 확보를 위한 조직 구조로 구성하고, 사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대학 본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함
- RISE 추진 시 지역 산업 연계와 산학협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함
-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운영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함

□ 양오봉 회장은 “이번 조사 결과는 대학이 견고한 조직적 기반을 통해 지역

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라는 RISE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대교협은 대학의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변화에 발맞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,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 모델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- 붙임 1.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 결과 1부(별도 붙임).
2. 대학 RISE 사업단 현황 조사지 1부(별도 붙임). 끝.